

민중의 힘을 증명한 사람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SGI 회장

1928년 1월2일 도쿄 출생.

창가학회인터내셔널(SGI) 회장.

창가대학(創價大學), 창가학원, 민주음악협회, 도쿄후지미술관, 동양철학연구소 등 설립.

유엔평화상, 한국화관문화훈장 외 24개국 31개 훈장, 세계계관사인 등 수상 다수.

전 세계 대학으로부터 321개의 명예박사, 명예교수 칭호 수여.

토인비 박사와의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를 비롯한 저서 다수.



“어머니, 이젠 고생할 만큼 하셨어요.”
코라손 여사에게 자녀들이 말했다.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직전이었다. 코라손 여사가 마르코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심하자 자녀들은 망설였다. “아버지는 7년 7개월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셨고, 그리고 암살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런 비극을 겪으시고도 어머니는 지금 또 목숨을 잃을 위험을 안고 독재자와 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머니도 고민했다. 남편 베니그노 아키노 씨의 순난(殉難)에서 권력과 싸우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사롭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암암리에 사람을 해친다. 권력의 자리를 뒤흔드는 자에게 온갖 책

모와 폭력을 써서 보복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어머니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독재 정권과 싸우다 흉탄에 쓰러진 아키노 씨는 ‘민주주의의 순교자’였다. 그래서 그 유지를 이을 사람은 코라손 여사밖에 없다고 했다. 어머니는 망설였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인이 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남편은 망명지 미국에서 돌아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에 암살당했다(1983년 8월 21일).

마지막으로 이별할 때 그는 말했다. “나는 마르코스에게 암살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내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에는 용서하기 바란다...” 죽음의 예감은 현실이 되

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남편이 가장 기뻐할까? 여사는 기원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남편이 내게 ‘당신이 일어서야 한다’고 말을 걸어옵니다.”

코라손 여사가 자녀들에게 말했다. “그래, 확실히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견뎌 왔구나. 하지만 너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한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좋은 결혼을 했고 자식을 다섯이나 두었지. 넉넉하게 살았고 사랑도 있었다. 90%가 넘는 빈곤한 국민에 비하면 너희는 무척 행복한 거야. 그래서 더욱 우리는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은 많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이 엄마는 믿는다.” 자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1993년 11월 20일, 아시아시(市) ‘지구가족회’ 강연에서)

국민은 압도적으로 코라손 여사를 지지했다. 선거운동의 슬로건을 “지겨운 정치, 이제 그만!”으로 정했다. 오랜 억압과 거짓말로 가득한 정치에 사람들은 몹시 싫증이 나 있었다. 아키노 씨의 암살에 격분한 국민은 그런 정치에 대한 불만을 부패 타도의 열기로 결집시켰다. 위험을 각오하고 조국으로 돌아온 영웅의 죽음이 쌓이고 쌓인 민중의 노여움을 폭발시켰다.

나는 은사이신 도다 제2대 회장의 말을 떠올린다. “한 사람의 청년이 죽음을 결심하면 혁명은 이루어진다.” 마르코스 진영은 코라손 여사가 정치에 문외한이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코라손 여사는 훌륭히 반격했다. “경험이라는 점에서 나는 마르코스 씨에게는 도저히 필적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국민을 속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정적을 암살하는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요.” (〈아키노 대통령 탄생〉 루이스 사이몬스 지)

코라손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징색은 노란색이었다. 아키노 씨가 공항에 내렸을 때 마중 나온 지지자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서부극 ‘황색 리본’에서 아내가 출옥한 남편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고 마중했다. 코라손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노란 티셔츠, 노란 리본, 노란 깃발로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성실’한 마음의 상징이었다. 실로

생사를 뛰어넘는 ‘정신적 공동 투쟁’의 드라마였다.

노골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독재자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은 채 권력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것을 이제는 세계도, 국민도 인정하지 않았다.

‘꽃’이 ‘탱크’를 물리쳤다

민중이 항의하자 진압군이 출동했다. 이때였다. 세계사에 길이 남는 ‘인간 바리케이드’가 나타났다. 시민 수만 명이 팔짱을 끼고 탱크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이윽고 사람들은 기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탱크 철판에 손을 갖다 댔다. 군중 속으로 돌진할 수 없었던 탱크는 공터로 우회했다. 라이플총을 든 군인들이 뛰어내려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시민들을 노려보았다. 한 젊은 여성이 한 걸음 나아갔다. 손에는 꽃을 들고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과감히 꽃을 내밀었다. 군인은 당황했다. 한순간 긴박감이 흘렀다. 다음 순간 군인은 시선을 돌리고 뒤로 돌아섰다.

이것이 신호라도 되듯 살기가 돌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여성들이 너도나도 군인에게 꽃을 내밀었다. 사람들의 환성과 휘파람 소리가 박수와 함께 울려 퍼졌다. 궁지에 몰린 마르코스 집안은 국외로 탈출했다. 아키노 씨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부정, 허위, 반역 아래 영속적인 힘이 있을 리 없다.” (〈코라손 아키노, 투쟁에서 사랑으로〉 이와미야 기요시 지)

1986년 2월25일,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취임했다. 선거식이 끝난 뒤 대통령이 말했다. “남편이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라손 대통령은 전 정권이 남긴 ‘부채’를 떠안고 열심히 일했다. 나는 아시아의 첫 여성 대통령에게 멀리서나마 성원을 보냈다.

‘꽃’이 ‘탱크’를 이겼다. 이는 비폭력이 폭력을 이기고,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이기고, ‘혼(魂)의 힘’이 ‘검(劍)의 힘’을 이기는 시대의 개막을 상징했다. 힘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바뀌면서 필리핀 혁명은 수년 뒤의 냉전 종결도 예고했다. 그 주역이 여성이었다는 점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말했다. “어머니는 자식을 차별하거나 힘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필리핀의 어머니가 되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속에 정의와 진실과 자유의 귀중



이케다 SGI 회장과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우). 그녀는 1986년 독재에 항거하며 아시아의 첫 여성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꽃’이 ‘탱크’를 이기고 비폭력이 폭력을 이기고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이기는 시대를 열어젖혔다.

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필요로 하는 정치가 아닐까?

1991년 4월, 말라카냥궁전에서 나는 코라손 대통령에게 말했다. “대통령의 인생은 그대로 한 편의 ‘서사시’입니다.” 내가 장편시 ‘빛나라! 필리핀 어머니의 왕관’을 드리자 대통령은 수줍은 웃음을 머금고 “정말 기쁘다”며 좋아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시라고 하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남편이 투옥됐을 때입니다. 남편은 면회하러 온 우리 가족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며 시를 지어 주었습니다. 옥 중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나와 자식들에게 시를 지어 주었지요.” 시련에 단련된 때 묻지 않은 혼이다.

화제가 경제 쪽으로 옮겨가자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담담한 어조였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원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 정권과 달리 그것을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욕이 있으면 큰일은 이뤄낼 수 없다. 지금의 지도자에게 가장 부족한 덕목은 이 ‘무사(無私)’가 아닐까 한다.

여성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최고의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나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역할’을 찾으세요.”

코라손 여사는 평온하게 살기를 바랐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사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찾아냈다. 사랑하는 남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랑하는 조국의 행복을 위해 일어섰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싸운다. 힘들어도 바로 여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시’가 탄생한다.

여사는 내가 작사한 노래 ‘어머니’의 오르골(자명악) 연주를 무척 기뻐하며 들으셨다고 한다. 1994년 여사는 후쿠오카대학교에서 강연하실 때에도 청년에게 ‘행동’을 강조하셨다. “사람은 행동으로만 이 세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사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필리핀 민중의 어머니라 불리는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은 76세를 일기로 2009년 8월1일 타계했다.) 